

우루과이 농산물협상의 최종 진행과정과 전망

홍 보 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 수립을 목표로 86년 9월에 시작된 가트의 제8차 다국간 무역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최종협상이 바로 각국의 각료급이 참가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이다.

그동안 15개 분야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농산물, 서비스, 분쟁해결절차(미국 슈퍼301조 등 포함) 등에서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아 TNC회의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종료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1. 무역협상위원회의 진행과정(90. 12. 3~7)

총 107개국, 참가대표단 3천여명, 기자단 1천 300여명, 이중에서 미국 800여명, 일본 200여명, 한국 50여명이 참가했다.

TNC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농산물협상분야

였다. 이는 미국이 UR을 주도해 나갈 때 부터 '농산물 타결없이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일관되게 관철시켰음을 반영한다. 여기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미국의 1차적 목표는 EC의 농업과 수입국 농업의 무장해체를 통해 세계농산물시장을 재장악하는데 있다.

12월 3일 개막당일 : 칼라힐스(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개막당일부터 48시간 이내에 EC측이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EC측은 기존입장 변화없다고 주장했다.

12월 5일 : 텐켈 가트 사무총장, 에스피엘 TNC의장(우루과이 내무장관)이 EC에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도록 촉구하고 시한을 통고, 이 시한을 세번씩 연장했다.

12월 6일 : 최후의 시한인 6일 하오 5시까지 EC측이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6일 상오 농산물그룹 비공식회의의 헬스트림

의장(스웨덴 농무장관)이 미국과 EC와 논의없이 단독으로 EC에 대해 수정안 제시했는데, EC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 수정안 :

- 국내보조금은 90년 기준 5년간 30% 삭감한다.
- 수출보조금은 88~90년 기준 5년간 30% 삭감한다.
- 최저시장접근을 국내소비량의 5%로 인정한다.
- EC 6일 하오 그전까지의 국내보조, 수출보조, 시장점유비율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에서 상당 후퇴, 새로운 안 제시(· 외국농산물의 시장점유율 비율을 국내소비량의 3% 인정, · 수출보조금을 줄이지 않는 대신 보조금을 받아 수출되는 물량을 줄이겠다.)했으나 미국과 케언즈그룹은 이를 거부했다.

12월 7일 : 에스피엘 UR각료급회의 전체의장(우루과이 외무장관)이 “브뤼셀 UR협상은 일단 끝내고 내년초 협상을 재개하기로 한다”고 선언했다.

2. 농산물 협상 타결의 실패 원인 및 배경

1) 미국이 국제농산물 시장을 재장악하기 위해 EC의 수입부과금제도를 와해시켜 상실된 EC시장을 재석권하고, 수출보조금을 감축시켜 일본, 대만, 한국, 홍콩 등 수입국과 수입개도국의 시장에서 EC를 배제하여 미국의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자는 것이 UR에서의 미국의 전략이다.

2) 미국의 전력에 대해 EC가 이를 거부하고 기존의 공통농업정책의 기본틀을 계속 유지하겠

다.(수입부과금제도, 수출보조금제도, 소농보호, 육성정책) EC는 92년에 완전통합을 향해가고 있는데, 이의 기본정책 중 중요한 것이 공통농업정책의 지속이다.

3) 미국이 자신의 전략을 관철시키기 위해 EC가 통합되기 전에 힘을 분산시키는 전술을 구사했지만, 페르시아만 사태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EC회원국들로부터 전비를 받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EC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미국이 농산물부문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지만 90년 신농업법안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수출보조금 대상과 양을 확대)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도 항공, 해운, 기술통신 등을 개방에서 제외하겠다는 양면성을 그대로 누출시킴에 따라 약점이 있다.

4) 미국안에 반대하는 전세계적 소농들의 활동에서 작용, 예를들어 90년 2월에 열린 가트민간회의(제네바 선언)과 12월 3일에는 전세계 23개국 농민대표 2만2천여명이 브뤼셀에서 UR 반대시위 전개(한국농협 7인 참가)했다.

3. 앞으로의 전망

1) 우루과이 라운드의 전망

UR을 내년초로 연장하였지만 각료급으로 할지 실무자급으로 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적절한 수준’으로 표현하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행정부가 미의회로부터 통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기간이 2월말까지임을 볼 때 그 이전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① 페르시아만 해결을 위한 최후통첩일이 91년 1월 15일인 점으로 미루어 볼때 이때부터 미국의 입장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즉 1월 중순 후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전망된다.

② 1월말 제네바 후속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UR을 포기하기 보다는 최고 2년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관련규정은 “업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대통령이 긍정적인 중간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UR협상 의회통과시한을 93년 6월 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① ②의 전망에 관계없이 미국이 자국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EC 등 각국에 수입개방 압력, 보복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말부터 미국은 EC산 치즈와 채소, 포도주를 비롯한 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해 200%의 보복관세를 부과기로 했다. 이는 지난번 TNC회의에서 미국이 EC에 대해 미국산 옥수수와 당밀의 관세인하와 수입량 증대시한(올 연말로 종료) 연장을 요청했으나 EC가 거부하자 보복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다. 이렇게 미국의 EC에 대한 압력을 통해 UR에서의 EC의 굴복을 유도하려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EC의 통합에 대항해서 미국은 미주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와의 블록체제의 구축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추진하고, 남미도 이에 포함시키려고 부시대통령이 최근 남미를 순방했다.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개방압력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2) 미국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시장 개방압력의 가속화

90년 11월 28일 : 미국은 한국측의 국별감축 계획자료(OFFERLIST)는 구체적인 관세화 방안이 없고 수입개방 반대의지가 내포되어 있어 농산물 개방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미국은 오퍼리스트의 일부 수정이나 NTC품목의 축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내용

의 오퍼리스트 제출을 요구했다.

12월 1일 : 정부는 TNC회의 대책안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UR협상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과 시장개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보다 전향적으로 대처하며, 농산물, 섬유, 서비스, 금융, 지적소유권 등에 선진국의 입장을 수용한다는 내용이다.

12월 8일 : UR협상 한국대표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NTC품목의 수나 내용을 수정할 생각이 전혀없으며 이 숫자가 지나치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 내년초 UR협상은 전체협상과 국가별 양허협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며,

▲ 금융, 통신 등 서비스분야의 업종별 양허계획은 내년 1월까지 확정하고,

▲ 농산물분야는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부분은 다소 양보하는 등 협상전략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조정.

▲ 반덤핑, 긴급 수입제한, 지적재산권, 섬유 등 이미 대세가 판가름난 분야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수정하여 대세에 따르기로 하였다.

12월 11일~20일 : 조순 대통령 특사가 미국을 방문하였다.

12월 13일 : 한미 포도주협상 개최, 포도주의 관세율을 현행 30%에서 내년부터 매년 5%씩 내려 93년에는 15% 인하하기로 미국측에 제시, 양국이 합의하였다.

12월 13일~14일 : 양담배관련 실무자협의

12월 17일~18일 : 서울에서 한미무역 소위원회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담배소비세 배분제도 개선,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 수입을 늘리기 위한 쇠고기 동시매매 입찰제도 개선, 농산물 검역기준 완화, 세관 통관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1월 중순 : 한·미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